

- 종교다원주의 배격
- 동성애 반대
- 차별금지법 반대
-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81호
8월 23일
2025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 | |
|----------------------------|------------------------|
|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 ■ 농협
301-0153-7296-01 | ■ 문의
02)2675-5181~3 |

“말씀충만·성령충만·은혜충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은혜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다니엘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인내하고 성취하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나리를 위해 헌신하며, 마리아처럼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엡 4:13)’는 주제로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참석하여 열렸다.

학생들은 주제를 따라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한층 깊고 풍성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텁반을 이겨내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교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서, 학생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정립되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둔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교회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데 주안점을 두어 이번 수련회를 진행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조명제 목사는 수련회 주제 말씀을 본문으로 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제목의 설교로 본문 말씀이 교훈하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학생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었다.

조명제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배와 기도와 주님 안에서 하는 봉사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 다듬어지고 온전해지도록 축복해주었다. 이어서 학생들은 성령충만기도회와 특강을 비롯하여, 침례식과 2박 3일 동안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여러 가지 경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며 성령으로 종만하여졌다. 이와 함께 찬양하고 긴증하며 서로 믿음을 북돋워주는 즐겁고 은



혜로운 시간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를 위한 사명감이 한층 크고 깊어졌다.

“예수님의 기쁨이 될래요!” 아동부서 여름성경 학교 마쳐

올해 교회학교 아동부서의 여름성경학교가 ‘은혜의 길’이란 주제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넘게 각 성전과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와 소망부 등 각 부서별로 은혜롭게 열렸다.

많은 어린이들이 불신 친구들을 전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여졌다. 어린이들은 찬양과 유통, 예배, 성경공부와 창작 활동 등 성경의 가르침과 재미가 어우러진 다양한 순서를 통해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하여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고, 즐거운 놀이와 교제와 식사 시간에 교회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와 함께 기도회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위해, 자라면서 더욱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예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우와 여러 봉사기관들의 도움과 협력 그리고 교사와 보조교사로 참여한 성도들의 봉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름행사가 되었다.

은혜와진리교회 여름수련회 및 여름성경학교



“퀴어신학 OUT” 기장 분열 퀴어 지지자들 단호히 경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기장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

우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와 장로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 왔다. 과거 기장은 자랑스러운 교단이었다.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저항했고, 민주화, 평화, 통일, 생명운동 등 커다란 지향점을 걸고 줄기차게 걸어왔다. 한신대는 병점으로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교였다. 김재준·김정준·박봉랑·전경연·이장식 등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을 대표할 정도로 최고의 교수진이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한국 신학계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병점으로 옮기면서 한신대는 신학적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퀴어신학이 한신대에 퍼지면서, 퀴어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향린교회를 중심으로 한 퀴어 응호·지지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동체의 존재로, 퀴어자(동성애자)로 전략시키는 흐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퀴어(동성애) 인권을 사랑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괴상한 방향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

퀴어신학, 퀴어들을 응호하고 퀴어축복식을 거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인가? 제7문서에 ‘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성평등’ 용어가 들어가야만 진보가 되는가? 퀴어신학을 반역한 자를 한신대 교육 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로 된 임명으로 보는가? 한신대 신대원 채플실에서 ‘드레그퀸’을 공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보인가? 퀴어신학을 추천하는 자를 신대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맞는가?

한국 교계는 거의 모두가 퀴어신학을 적극적으로 이단시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훌로 거꾸로 가는가? 이것이 진보이고, 이것이 이한국기독교장로회가 나아갈 길이라 생각하는가?

기장은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성경을 토대로 민주화, 평화, 통일, 생명운동을 해왔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퀴어신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성경에 일치한다고 보는가?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왜 퀴어신학을 응호·지지하는가? 왜 퀴어들의 인권만을 최우선시하는가? “예수님도 퀴어(동성애자)”라며 신성을 모독하는 퀴어신학을 그대로 방치할 셈인가?

한국기독교장로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바로 퀴어 지지자들이다. 그들이 건강한 교단을 서서히 분열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 위원회로 변경시키는 시도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저지시켰다. 그들은 퀴어 교단으로 만들어 가려고 끊임없이 관철시키려는 작업(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평등)을 계속하고 있다. 타 교단에서는 거의 모두가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교단 분열이 아니라 교단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나섰다. 퀴어 지지자들이 교단에서 활동할 수록, 우리 교단은 결국 한국교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길이 교단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나가는 길이다.

퀴어 지지자들은 교단 안에서 소수이지만, 종회 각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들이 교단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속지 말자. 그들은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우리를 교단 분열자로 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교단의 분열자는 퀴어 지지자들이다. 그들은 교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퀴어를 지지하는 교단으로 만드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만약 퀴어신학이 교단 내에서 허용된다면, 교단 내 중·대형 교회들이 상당한 내홍(분쟁이나 갈등)으로 휩싸일 것이다.

참된 신앙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무조건 겸종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것이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퀴어(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 모두를 극우니, 극한 혐오자며 차별자라고 정죄하며 교단을 분열시키려는 무리들을 단호히 경계한다.

지금까지 신학교의 신학 사상 흐름은 안타깝게도 디원주의·훈합주의·인본주의가 주를 이뤄왔다. 강단에서도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나, 성경을 윤리 교과서로 전략시켰다. 신대원 채플실에서 열린 ‘한신 50주년 운동사 기념예배’ 때, 신대원 원우회 대표회장이 대표 기도 마무리로 “민중의 스승이신 예수 선배 이름으로

교로 초장
마을시내

‘이러한 기도(3)’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욘 2:1,2)

하나님이 아뢰는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이방 나라 앗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중대한 사명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임무였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불행히도 “그러나 요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마음 먹고 육파 항구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출항 대기 중인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배가 출항하여 순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풍파가 대작하여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폭풍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독특한 것임을 간파한 선원들은 승객이나 선원 중에 누군가가 모종의 큰 죄악을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피 길에 오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배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 소식이 왕에게 알려지자 왕은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일에 기뻐하여 거국적인 행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조사를 내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굶은 배를 입게 하고,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어 했습니다. 악행을 버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회개가 있었기에 니느웨 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소망과 믿음을 파리했습니다. 감사와 서원을 표명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WEA 서울총회 철회하라’ 규탄집회 열려

사랑의교회 앞 WEA반대목회자성도연합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앞에서 ‘WEA 서울 배도총회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규탄집회가 열렸다. 오는 10월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개최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WEA 반대목회자성도연합(대표 조덕래 목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앞에서 ‘WEA 서울 배도총회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WEA가 지난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적 성향에 대해 경고하면서 한국 교회가 WEA와의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80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개혁교회 연합단체, 구속 언약의 해방과 사명 강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대표 회장 양정섭 목사)는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 회장 박형렬 목사), 세계개혁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와 함께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루이시기념관에서 제80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예장 합동 개혁총회 총회장 이승권 목사의기도, 개혁중창단의 특송, 박형렬 목사의 설교, 인사말, 만세삼창,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형렬 목사는 룸 8:1~10 말씀을 본문으로 ‘구속 언약의 해방과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과 희

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개혁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구속 언약의 개혁 △오직 언약의 해방 △오직 사명의 사역을 핵심 주제로,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문화령과 선교령을 실천하는 전문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설교했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무장해 세계복음화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는 인사말에서 “연합단체가 비성경적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을 배격하고, 개혁교회의 전통과 복음주의 정신으로 믿음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교역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만세삼창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대한민국과 복음한국의 번영을 기원하며 힘차게 만세를 외쳤다. 이후 찬송가 24장을 합창하고, 김권현 총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는 식사와 교제를 나누며 11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동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742명 모집

‘원조 무전공 입학 대학’ 접수 9월 8~12일

신입생 전원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하는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전형 총 모집인원은 742명으로, 학생부교과 전형 235명, 학생부종합전형 507명으로 구성된다.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모든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전형별 모집인원은 △G-IMPACT 인재 220명 △한동인재 100명(신설) △글로벌 인재 75명(해외 출신자 대상) △대안학교 90명(대안학교 출신 학생 대상) △선교사자녀 30명(신설) △SW인재 7명 등이다.

신설 ‘한동인재·선교사자녀’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교과 성평 가를 도입했으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교사자녀’ 전형이다. 한동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교과 성평 가를 도입했으며,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교사자녀 전형은 한동대 설립 정신과 깊은 연관성으로 마련된 전형이며, 국내외 교단·교회·단체에서 시무한 경험이 있는 선교사자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3일간 봉사

성누가회 힐링핸즈 봉사단 아픔과 역사 직접 경험

성누가회 힐링핸즈 봉사단(대표 신명섭 원장) 35명은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3일간 봉사, 예배, 교제, 역사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년들에게 소록도의 아픔과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신앙과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고, 주민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을 잊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성누가회 힐링핸즈는 예수님이 사랑을 품고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봉사단체로, 현재 약 1,000명의 대학생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소록도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7개 교회 중 일부는 인구 감소로 폐쇄된 상태다. 봉사단의 둘째 날 일정은 새벽 3시, 신성교회 성도들의 기도 준비와 함께 시작됐다.

봉사팀은 교회 청소와 가정 방문을 하며 준비한 선물과 간식을 전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친양을 불러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광복, 기념을 넘어 계승과 실천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광복 80주년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광복의 의미를 단순한 국권 회복을 넘어 끊임없는 회복과 재건의 여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자유와 독립이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의 결과임을 상기시키며, 광복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넘어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미래로 이어가는 일이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한기총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역사왜곡·독도 영유권 주장·강제징용 부정 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평화 대화재개, 북한인권법 이행과 인권 증진 노력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전쟁 중단·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 △여야 정치권의 이념 대립

극복과 민생 우선 등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광복의 메시지가 오늘날 전 세계 억압받는 이들에게도 유효하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기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행동할 것”이라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혼신하는 삶으로 진정한 해방을 향해 나아가자고 결의했다.

‘제8회 원로목사 여름산타’, 1천여 노숙인 위로

‘희망과 비전, 그리고 복음’ 서울역광장에서 위로물품 나눠

서울역광장이 무더위 속에 하루 동안 사랑과 나눔의 장으로 변했다. ‘희망과 비전, 그리고 복음’을 주제로 한 제8회 원로목사 여름산타 행사가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무더위와 힘겨운 삶에 지친 노숙인(자유인) 1,000여 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여름산타’는 매년 거울에만 등장하는 산타의 이미지를 깨고, 계절과 상황을 가리지 않

는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한국노숙자총연합회와 한국원로목사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노숙자총연합회와 한국노숙자(자유인)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1부 예배에서는 김마리아 목사의 인도로 현광희 목사와 광문자 목사가 각각 ‘나리와 한국교회를 위해’, ‘소외계층과 노숙자(자유인)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윤봉순 목사

의 성경봉독, 박장우 목사의 말씀선포, 유금자 목사의 봉헌기도, 이주태 장로의 광고, 박만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를 전한 박장우 목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대표회장)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평안임을 믿는다”며 “지혜로운자는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어리석은 자는 부자라도 걱정한다. 오늘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전한 준비위원장 이주태 장로(한국노숙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따르면, 원로목사들이 직접 ‘산타’ 옷을 입고 노숙인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은 8년 전 거울이었다. 이 장로는 “예수님은 계절을 가리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에게 계절 따라 움직일까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 직원들 ‘불법 집단행위’ 의혹

주요셉 대표 등, 감사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직무감사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집단행위를 벌였다면 직무감찰을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됐다.

주요셉 자유인권실천전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11일 오후 3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성격을 띤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감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주 대표는 “2025년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84조의2를 위반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청사청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고주장했다.

청사청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

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를 지키는 직원들’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이들은 기자회견장에 모여 안건 통과를 막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사과한다고 밝히며 사과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 대표는 “이 기자회견문에는 노동조합 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 의사표현이 담겨 있다”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포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성서공회, 우크라이나어 성경·어린이성경 보내

한국교회 후원으로 8차 발송, 우크라이나어 성경 1,520부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선균 목사)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어 성경’ 1천 520부를 부와



‘우크라이나어 어린이 성경’ 8천 7백 부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지난 8월 1일 발송했다.

발송된 성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며, 특히 전쟁 가운데서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5개월.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쟁과 공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져 건물들이 파괴되고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와 의료진 등 약 1,200여 명이 물려 병원 건물로 포함되어 있었다.

전쟁의 피해가 지속되며 성경 보급 행사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했고, 레크리에이션과 창작 워크숍, 성경 이야기 공부, 학동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행사 후에는 참석한 이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었다.

회자들은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기 위해 성경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 오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성서공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보급 행사를 주최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외상 환자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암, 신경계 질환 건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전쟁 스트레스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 부족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가 주최한 성경 보급 행사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했고, 레크리에이션과 창작 워크숍, 성경 이야기 공부, 학동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행사 후에는 참석한 이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었다.

| 생명의 말씀 |



유봉수 목사

- 교단 전임총회장
- 교단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전서 2:24

첫째로 치유는 예수님의 구원에 ‘따라 오는 은혜’입니다.

구원에 따라오는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몸만 오시오 하였는데 아내는 몸만은 것이 아니라 장롱, 이불, 세이코시계, 금반지 등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즉 구세주(the Savior)로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였고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의 종류에는 육체적인 병(physical diseases), 마음의 병(mental diseases), 신앙의 병(spiritual diseases)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병은 그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만해도 현재 두통, 위궤양, 장염, 피부간조증, 허리통증, 비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로 주님의 치유를 구하며 열심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병이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귀신들린 것 등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지식과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이런 마음의 병으로 자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국가의 통치자까지도 그런 비참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로 신앙의 병이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귀신들린 것 등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지식과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이런 마음의 병으로 자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국가의 통치자까지도 그런 비참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17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성령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9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복고치는 은사를”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복지들을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15을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 위를 지나기만 해도 나을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9:12에는 바울의 앞치마를 환자의 몸에 덮어 도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22-23에 “너

을 지닌 것은 지역 행 티켓을 취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질병을 지니고 있는 이가 있다면 어서 돌아가고 회개하여 예수님만을 하나님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 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둘째로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마가복음 9:23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나민은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7:1-10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헤브리 민족에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이 그만 중병(重病)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께 치유를 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오시려 하자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지 못하겠소니 제가 부하에게 명하듯 그 계신 자리에서 다만 말씀만 하소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적이 없느니라!” 하시며 명하시니 하인의 병이 즉시 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면 언제 믿음이 생겨날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17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성령 받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2:9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복고치는 은사를”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복지들을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15을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 위를 지나기만 해도 나을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9:12에는 바울의 앞치마를 환자의 몸에 덮어 도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22-23에 “너

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사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라기 3:10-12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애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결론.

중병을 앓는 어느 청년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침상에 누운 채로 목사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원받아 천국 가리는 의미로 베드로전서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던 청년이 힘겨운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만약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또 주님께서는 제 병도 고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 하더니 곧 있는 힘을 다해 침대의 이불을 걷어차고 외투를 걸치고 주운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나았다!”라고 외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지러웠으나 계속 믿음으로 걸었을 때, 그는 온전히 치료받고 깨끗이 나았다는 증상을 들은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침대를 박차고 나와 밖으로 가는 행동을 보일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 제일 불쌍한 목사가 중병 들고 돈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당신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치료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80년 전에 비록 타의에 의하여 해방이 되었으나, 3년 후 독립을 하고, 참된 광복을 맞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역사와 세계와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포(刷風)이 몰아치는 만주 벌판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타국의 눈치를 보면서 애국봉신(愛國奉身)의 결의로, 국권 잃은 백성으로 이역만리에서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몸 바쳐 건국충정(建國忠情)을 아끼지 않은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과 광복의 감격과 독립의 확고함과 건국의 정신으로 계속하여 변영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동정

포항문화원 한동대와 협약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활동해지역혁신원과 포항문화원이 지난 8월 5일 지역문화기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죄인 육동해지역혁신원장(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교수)과 박승대 포항문화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핵심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관과 대학의 전문성을 결합한다.

제51차 CBMC 한국대회



국내 기독 실업인과 전문인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소명과 사명을 불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제51차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한국대회(대회장 최병철 한국CBMC 중앙회장)가 13일 개회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창 1:28)는 주제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렸다.

‘행복한나눔 대림점’ 오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이 ‘행복한나눔 대림점’ 문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행복한나눔 대림점은 기아대책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북한이탈주민 지원 매장이다. 행복한나눔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해 근무 경험과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장백석 사무총장에 박종호 목사



예장 백석 종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제48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8월 11일 오전 종회관에서 선거인단 선출 및 임원 선출을 진행, 신임 사무총장에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안양종신교회)를 선출했다. 백석 종회는 증경회장단, 전현직 임원, 상비부서장, 노회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먼저 선거인단 선출을 진행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해방 80주년, 광복·독립·건국 77주년 기념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방 80주년, 광복 77주년, 독립 77주년, 건국 77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이제 강점기 국권을 잃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으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해방(해방)을 맞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타의(他意)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을 해방과 함께 광복(光復)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실제와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항복한 날이다.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은 그해 9월 11일까지 조선총독부의 국기 계양대에 일장을 걸었다.

그리고 미군정 3년을 보내고 나서 1948년에 광복과 독립과 건국을 이루게 된다. 이 때까지 우리나라는 독립하거나 진정한 광복(光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광복은 ‘영광스럽게 나라가 회복된 것’을 말하지만, 우리나라를 실제적으로 국가로서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나중에는 해방과 광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둠(일제)을 뚫고 빛(해방)이 찾아온 것으로 혼선을 빚어, 국가독립기념일(Korean Independence Day)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자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또 건국(建國)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1919년과 그로 인한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근대의 온전한 국가를 이루려면, 인구, 영토, 주권, 정부가 있어야 한다. 국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하면,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지리적 단위의 정치 결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가져야 하고,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질서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영토 내의 통치와 외부 세력과의 관계에서 외부 간섭을 안 받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역사 인식 속에서, 국가의 해방과 광복, 독립과 건국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한다. 건국(建國)은 이미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왕이 통치했던 전제(專制) 정치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새로운 민주정치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한다면 내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가 42%, ‘아니다’가 33%였으나,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양군이 철수하는 것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78%가 찬성했다고 한다. 결국 이 조사 수년 후에 우리는 6·25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적인 전쟁을 당해야만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되자마자, 1945년 8월에 사회주의자 여성운동에 의하여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에는 여성 운동이 공산주의자 박현영 등과 함께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성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도 있었다. 이를 막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국가를 세운 것은, 뒤늦게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귀국한 이승만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

최근 동북아 역사재단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광복 80주년 국제 학술회’에서, 소련의 스탈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인 스티븐 코트킨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빅 피처’를 실천했다. 이것은 그가 국내에서 저질렀던 여러 정치적 실패를 덮을 만한 정도의 큰 업적 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려면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하고, 정치권의 통합과 상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들도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거나 담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 앞에 있으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국민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과 광복의 감격과 독립의 확고함과 건국의 정신으로 계속하여 변영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 소망교회

개척사명을 가진 목사님을 후임 목회자로 초빙합니다



● 표어: 십자가에 복 누리는 것(요 19:30)

● 목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마 25:23)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당촌1길 69-2(죽리 377) 031-674-6745 010-3947-2224 담임목사 강희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역자

진주순복음교회에서 8월 월례회 개최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진원 목사)는 지난 8월 7일(목) 오전 11시, 진주순복음교회(담임이나 견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산하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법근 목사(진주순복음 교회)의 찬양으로 시작해, 지방회 회계 고에스더 목사(순복음예빛교회)의 사회, 김라함 목사(사랑의 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서법근 목사의 특별찬양, 사회사의 성경봉독, 지방회 총무이나 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출 34: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진리보다 종교연합 물질주의, 인본주의, 자기 사랑을 우선하는 영적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자비와 은혜, 오래 참으심이며,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하나님 이원하시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듭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며 룸 12:10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인천지방회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어 김영현 목사(사랑의 교회)의 현금기도, 전임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 교회)의 현금축복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는 전임회장 김성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정모 목사(전임회장)의 개회기도, 회원 점명과 총무·재정보고는 이나견 목사와 고에스더 목사가 각각 맡았다.

이어 안건 토의 후, 김정근 목사(전임회장)의 평회기도로 모든 회무를 마쳤다.

이후 회원들은 기념촬영과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뒤 각자 의사역지로 돌아갔다.

전 세계로 퍼지는 K-이단, '국제 이단대책 포럼'

신천지 · 통일교 · 전능신교 등 각국 전문가들 대응전략 공유

국내외 사이비 이단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이단 문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8월 7일(목) 오후 대전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관에서 '국제 사이비 이단 전문가 학술교류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한이협)와 세계이단대책협회(대표 진용식 목사)가 공동 주최하고, 목원대학교 목회교육원이 협력했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이단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자국의 이단 실태와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한 JMS의 성범죄와 대학 활동, 하나님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 구원과 박육

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는 '대한민국의 이단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진 목사는 "오늘날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K-POP, 한국라면, 그리고 한국산 사이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발 이단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 의교회, JMS, 구원과 등을 국내외 대표적 문제 단체로 지목했다.

신천지는 위장 포교와 정치 개입 의혹, 통일교는 일본에서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의 배경이 될 만큼 심각한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JMS의 성범죄와 대학 활동, 하나님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 구원과 박육

수씨의 해외 세력 확장과 자녀들의 아동 학대 연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단 단체들의 폐해를 경고했다.

진 목사는 이단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이단 예방 세미나를 통한 교육 강화

*이단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마련

*정통 교단의 철저한 연구와 이단 규정 확립

*기만적 포교 및 척취를 차별화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또한 "이단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의 모두 발제를 맡은 진용식 목사(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8월 12일(화)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홍열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예배는 배길선 목사(반석샘물교회)의 찬양인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지방회 총무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어 부회장 김진현 목사(전순복음교회)의 기도, 사회사의 성경봉독, 사모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 김은숙 목사(선한순복음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노 4:7 말씀을 본문으로 '예루살렘성이 중수되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아다사스다왕의 신임을 받던 술말은 관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의 허락을 얻어 귀환, 성벽을 재건한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성벽 재건 과정에 많은 방해와 대적이 있었으나, 느헤미야는 기도와 경계로 이를 극복했다"며 "목회 현



장에서도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교단, 지방회를 위해 특별히 박홍열 목사(오성사랑교회)와 강신흥 목사(주사랑교회, 흥성단 사모)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정수 전도사(순복음세계로교회)의

헌금기도와 김은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인도로 은혜롭게 마무리된 후, 파크엘림으로 이동해 오성사랑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중식과 내부 카페에서의 디과로 교제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배길선 목사와 이정수 전도사가 간증을 나누며 회원들은 사랑과 은혜를 나눈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필리핀 선교지, 연이은 태풍 피해 긴급 도움 요청

태풍 단테·에몽 잇따라 상륙 큰 피해

교단 필리핀지방회(회장 이요셉 목사) 산하 교회가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교단 본부와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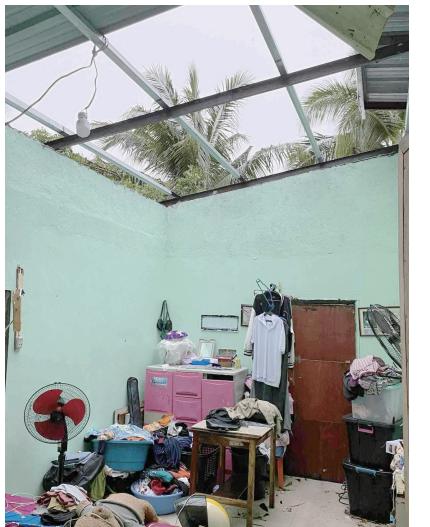
지난 한 달 전,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은 태풍 단테(Dante)와 에몽(Emong)이 잇따라 상륙하면서 강풍과 집중호우가 장기 간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 주 이상 모든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으며, 정부기관과 각종 공공 시설도 정상 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회 전반이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고, 교회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성도들의 가정은 침수로 인해 기재고구를 잃고, 어렵게 일군 농작물도 물에 잠겨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필리핀지방회 회장 이요셉 선교사는

"앞이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사단법인

충남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



사단법인



대표회장

고문

충남대표회장

대표본부장

상임본부장

실무본부장

사무총장

제1부사무총장

제2부사무총장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감사

천안시 대표회장

아산시 대표회장

당진시 대표회장

서산시 대표회장

태안군 대표회장

예산군 대표회장

홍성군 대표회장

서천군 대표회장

청양군 대표회장

부여군 대표회장

공주시 대표회장

논산시 대표회장

금산군 대표회장

천안시 대표본부장

아산시 대표본부장

당진시 대표본부장

서산시 대표본부장

공주시 대표본부장

태안군 대표본부장

예산군 대표본부장

홍성군 대표본부장

서천군 대표본부장

김인호 목사

신동성 목사

안병찬 목사

조이철 목사

김성환 목사

소대영 목사

이재웅 목사

김형철 목사

김영복 목사

이문용 목사

한철희 목사

김인호 목사

신동성 목사

안병찬 목사

조이철 목사

김성환 목사

소대영 목사

이재웅 목사

김형철 목사

김영복 목사

이문용 목사

한철희 목사

국정기획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공식화...총력 대응

교계·시민단체 “현법 위반… 총력 저지 나설 것”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회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고 밝혔다.

교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평등’이라는 명칭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명칭 변경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반연·진평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같은 날 국정기획위 발표 직전 기자회견을 열

고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국정기획위가 국민 제안을 받기 위해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자는 제안은 비추천 1,702명, 추천 38명으로 반대가 무려 44배나 많았다”며 “지난 7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3.4%가 명칭 변경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뿐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정부가 제3의 성과 수십 가지 젠더 개념을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은 여성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도 남성 선수들이 ‘여성’을 자처하며 출전해 여성 선수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국은 2006년 젠더평등 정책을 도입했지만 19년 만에 대법원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정기획위는 이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국회에도 강력히 촉구했다. “성평등가족부 설치는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 준수 의무를 다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민의를 거스르는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추진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 학부모 눈높이 맞는 올바른 성교육 기관 선정해야”

동반연, 진평연 등 시민사회단체들, 성명 통해 촉구



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인 김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기관선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8월 14일에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아하 성문화센터)의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한다고 한다”며 “그동안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왜곡된 성 윤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왔기에, 이번에는 올바른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진 기관에 위탁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그동안 위탁받은 기관은 전국 57개 성문화센터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성교육을 했다”며 “예로서, 2022년에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등의 용어를 삭제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비난하며, 새 교육과정으로 성교육 후퇴가 불가피하며, 성소수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센터장은 2001년부터 무려 25년 동안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맡고 있어서, 2024년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그동안 위탁받은 기관은 섹슈얼리티 교육을 응호했다. 그런데,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것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성정체성·성적지향 등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그리기에, 2022년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세

슈얼리티 교육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아하 성문화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섹슈얼리티 교육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하 성문화센터가 주장하는 섹슈얼리티 교육 또는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있는 내용으로서, 한국 국민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서구의 급진적인 성교육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서구의 성교육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 교육을 응호하며, 동성애도 다른 약 진정한 성교육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다수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데 불구하고, 주위에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기에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2022년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금지한 성평등 교육을 응호한다”며 “이러한 태도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러기에, 이번에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진 기관이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받기를 학부모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기존 기관이 계속 위탁반복으로 하려는 편

파적인 보도가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왜곡된 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할 때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해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녀를 맡기고 싶은 기관으로 선정해 주길 촉구한다. 청소년기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에 윤리관과 가치관을 정립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서울시는 아하 성문화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도덕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기관인지 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향해 △성문화센터를 학부모의 마음에 합한 도덕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기관에 위탁하라 △성평등,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등의 용어를 삭제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 내용을 명확하게 준수하는 기관에 위탁하라 △성문화센터를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심어줄 기관에 위탁하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진 기관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촉구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출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출업 및 출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훌륭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문의처 및 주소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9-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회처 (우)07205
http://gd.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8.15 광복 80주년 기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출판기념 및 국가기도회 개최



이광웅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웅 목사, 이하 예장총연)는 지난 8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출판기

념제80주년 8·15 국가기도회'를 열고, 광복의 은혜와 복음 140년의 역사를 기념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든든한 안보와 저출산 극복, 남북 복음통일,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회 회복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예배는 예장총연 상임회장 안병삼 목

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국가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통성기도 후, 대표회장 이광웅 목사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이광웅 목사는 대회사에서 "26년간 각 분야의 유능한 강사들을 모시고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에 바른 길을 제시해 왔으며, 그동안 주목 같은 강의 원고들을 역사에 남길 귀한 서적으로 출판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예장총연은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임을 강조하며,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거듭날 것을 역설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예장합동 보수총회 오영호 목사의 특별찬양, 예장 합동전국연합총회 임원일동이 찬양을 드렸으며, 예장총연 고문 예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영수 목사는 겸 37:7-10 말씀을 본문으로 '큰 군대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이 땅의 교회의 모습, 나라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다. 오늘날에는 이단과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마른 뼈와 같은 교회를 보여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 마른 뼈가 붙여지고 균육과 조직이 붙여져도 마지막 생기가 없었다.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 큰 능력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들고 기도해야 한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부흥의 사인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마른 뼈를 경험하였지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민족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대한민국과 남북 복음통일 △대통령과 정계 지도자 △국가안보와 사회·경제 발전 △저출산 해결과 도덕·윤리 회복 △WCC·WEA 종교다원주의·이단 척결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 △예장총연과 국가기도회를 위해 박대규 목사, 조규연 목사, 권혁은 목사, 이종태 목사, 양유식 목사, 오선미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이어 예장총연 고문 김기형 목사의 격려사, 예장총연 고문 김원식 목사의 축사



가계속되었다. 이후 예장보수합동 총회원들의 현금찬송과 벤이아니 김순종 목사의 헌금기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2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출판기념 감사 순서가 예장총연 지도위원 김화인 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상임회장 김병선 목사의 개회기도 후 강준오 목사(한국기독언론법인 이사장)는 서평을 통해 "이번 출판은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신앙 유산을 전하기 위한 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순서를 맡은 분들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이후, 한국교회는 눈부신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며 민족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훼들리고, 세상의 변화 속에 정체성과 사명을 재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책 출간을 넘어,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깊이 성찰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귀한 발걸음이라 생각 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했다.

아울러 이 귀한 자리를 준비한 대표회회장 이광웅 목사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

사드리며, 이번 출판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예장총연은 서기 김영복 목사의 인도로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8·15 광복 80주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라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또한 △국론 분열 극복과 화해·협력△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한반도 평화 촉구△기후변화와 신앙의 일치 시도 거부△종교다원주의의 반대△남북 평화통일과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에스더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제창하고 만세삼창 후 상임회장 원동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샬롬나비 / 2025년 8·15 광복 80주년 맞이하여

대한민국 광복의 지도자들은 투철한 기독교 정신, 애국적 신앙으로 자유민주국가를 세웠다

202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항일 독립전쟁의 피나는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였다.

뜻깊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마음은 매우 착잡한 가운데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안보지형은 80년 전 당시처럼 세계 열강들의 냉혹한 각축전 속에서 국정의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청산되거나 못한 과거사와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해 이념 갈등과 감정적 대결 구도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부디 올해 광복절은 지난해처럼 '건국 논쟁'으로 인한 국민분열·국론분열 사태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분기점으로 통일·번영·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롬나비는 지난 80년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서를 발표한다.

1.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당한 80년 전 광복절을 빼어 새겨 자강·독립 대한민국을 공고히 다져야 한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한번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일본은 항복을 결정했고 이를 곧바로 미국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항복에 대한 공식적 선언은 자체되었는데, 그 배후에 천황의 체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 사이의 출다리기 협상의 시간이 있었다. 협상이 지체된 와중에 8월 9일 한반도에 진군한 소련은 공격을 시작하였다. 미·일 간 협상 지연과 소련의 공격 틈바구니에서 너무나 원통하게 한반도 분단의 비극이 애타게 되었다.

일본이 항복을 통보한 그날에 항복이 공식화되었다면, 한반도 역사가 분명 달라졌을 거라는 해석이 유효하다. 본래 8월 11일 전쟁을 시작하려고 계획했던 소

련이 한반도에 진군하기 전에 전쟁이 종식되었다면, 국토 분단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역사 인식도 분분하다.

희망과 기대와 동시에 불안과 갈등이 교차하던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일본의 항복 소식과 함께 갑자기 찾아온 광복을 치밀한 준비 없이 맞았던 우리는 이후 우리라는 고통과 회한으로 가득한 현대사를 겪어야만 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80년 전의 원수와 친구가 되는 현실에 만감이 교차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는 반일·친중 노선을 견지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에 대한 인식은 진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식민 지배의 역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조국을 되찾은 선열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함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북·중·러 밀착 관계 속에 부각되는 한·미·일 동맹의 당위성 앞에서 일본에 화해와 협력의 손길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세계를 훔쓸고 있는 오늘날 자강·독립 대한민국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사도 광산은 그동안 정부 수립 혹은 대한민국 건국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단독정부 수립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도 안 되고 강대국 간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오직 자주·독립 국가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필생의 신념이 드러난 정세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국민 임명식'이란 이름으로 이 대통령의 공식 취임 행사가 함께 진행된 일이다. 온 국민이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나리를 되찾은 기쁨을 누리고 국가적 성취를 나누는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을 사실상 이 대통령 2차 취임식으로 대체·화석시키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여기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수많은 성도들의 눈

불어린 기도의 결과였는데, 건국의 과정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고비마다 하나님과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드디어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가 개회되었는데, 사회자인 이승만 국회의장의 첫 마디는 신앙고백이었다.

8·15 해방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한 10월 16일까지를 학계에서는 '좌의 드세기'로 일컫는데, 이는 당시에 해방 공간을 주도한 세력이 좌파였기 때문이다. 해방과 함께 온건 좌파와 여성들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발족되었다가, 곧이어 남로당의 박헌영이 이를 장악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선포하였다.

해방과 독립을 동일시했던 일반 국민은 일본이 물려갔으나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북한에서 소련의 공산화 정책은 일관성 있게 속도전으로 강행되었지만, 남한에서의 미군정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합의는 물론 갈등과 충돌로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위험과 오해를 무릅쓰고 좌우합작을 배제한 채 1948년 8월 15일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를 비판하는 정치세력은 대통령이 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공격했지만, 이는 완곡된 지적이다.

분단 정권을 수립하라는 스탈린의 지령(1945년 9월 20일자)에 따라 남북 분단은 일찌감치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혹은 대한민국 건국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실은 그동안 정부 수립은 고비마다 하나님과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드디어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가 개회되었는데, 사회자인 이승만 국회의장의 첫 마디는 신앙고백이었다.

8·15 해방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서 귀국한 10월 16일까지를 학계에서는 '좌의 드세기'로 일컫는데, 이는 당시에 해방 공간을 주도한 세력이 좌파였기 때문이다. 해방과 함께 온건 좌파와 여성들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발족되었다가, 곧이어 남로당의 박헌영이 이를 장악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을 선포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로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의 계티스버그 연설('국민의·국민에 의한 정의')을 행하는 '국민의 나라이'임을 입증한다.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에 의거해 '북조선인민주의공화국'의 실체를 적시하면, 전혀 민주적이지 않으며 국민의 나라도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에 앞선 첫 번째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그것은 북한의 선거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첫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헌법에도 없는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기도로 시작된 제헌 국회는 7월 20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오전 8시에 우리 역사에 첫 번째로 개회한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조국을 하나님과 함께 세우려는 건국 대표들이 전면적인 협력으로 일정을 확정하였다. 이는 당시에 북한 동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다.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른 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 성수되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장구한 세월 차근차근 쌓아 올린 정치적 선진화 과정을 일시에 해결해버린 데서 오는 부작용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차별 없이 보통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남한이 북한과 대조적으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행하는 '국민의 나라이'임을 확증한다.

5. 민주 공화국을 표방한 건국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임시정부 헌법의 성취자 완성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대한민국헌법)의 첫 문장에는 1948년 대한민국이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건설한 정부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다. 건국한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군주제나 입헌 군주제를 취한 권력체가 아닌 것이다.

사실 1945년 8월까지 한국인들은 서구에서처럼 민주주의나 시민혁명을 경험해 본 일이 전무하였다. 그럼에도 민주 공화제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제헌헌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의 민주주의

를 운영하는 미국이 남한을 관할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 공화국 건립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온 민족 운동가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3·1 운동 후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을 제정하고 이후에 일관되게 이 헌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그러한 결실로 제헌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제헌헌법은 우리나라 민주 민족주의의 법지의 근간이다.

6. 한국 교회는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해결 노력, 나아가 남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체결 보름 후인 8월 10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다.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른 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 성수되고야 말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박해당하는 현실을 당연시하면서 무정한 마음을 갖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 탈북 민족들의 반인권적 강제 구금과 지독한 고문, 기록행위와 즉결 처형, 강제 북송이 강행되어도 수십만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남성들의 성노리개가 되어 짐승처럼 내몰려도 ("이 돼지 저 돼지"로 불리며) 침묵하며 방관하는 냉담한 동족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딛고 미래를 향하는 길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애민(愛民) 정신과 숭고한 유지(遺志)를 받아들이 불의한 독재자의 압제와 너무나 참혹한 인권유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한없이 절망하는 북녘땅의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북한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금 터는 통일을 향한 기틀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기아대책, 민사고와 라오스 식수지원

청소년 직접 개발 정수기, 라오스 아이들에 깨끗한 물 선물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 '옹달샘' 학생들과 함께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6일까지 '2025 민사고 옹달샘 라오스 식수지원 적정기술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민사고 옹달샘 학생 11명과 기아대책 관계자 2명 등 13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직접 개발한 전기 없이 작동하는 3단계 중력형 정수기'를 현지 초등학교에 시범 설치하고 정수 성능을 검증했다.

라오스 식수지원 적정기술봉사활동은 2023년 현지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존 정수기에서 수질 불안

정 문제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비엔티엔 외곽 및 농촌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위생 인식과 관리 인력이 부족해 아동들이 수인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기아대책과 민사고 학생들은 현지의 정수 기술 부족, 위생 인식 한계, 유지 관리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필터 교체가 쉽고 유지 관리가 간편한 중력형 정수기를 개발했다. 이 정수기는 외부 전력 없이 지역사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립형 모델로, 약 900명의 현지 아동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보급하고 건강 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면에서 이어집니다

7.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의 나라로 다시 번영하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과거의 침략의 잘못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은 독재체제 하에서 국민이 기본적인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인 기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제모델을 본받은 국가주권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나 정치에서는 공산당 독재체제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여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번영하면서 주변 국가와 함께 평화를 누리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8. 21세기 한국의 가야할 길은 중·러의 대륙국가 영향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자유국가 일본, 유럽과 함께하는 해양 지향국가로 나가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정학적 근접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조선에 위협을 가하였다. 명(明)나라와 청(淸)나라는 조선을 조공국가로 지배했으며, 소련 스탈린은 극동 지역 안정화 명목으로 1937년 연해주 거주 조선인 17만명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고,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언뜻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인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은 가장 낮은 산도 훈자서는 오를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강영우 박사의 말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피츠버그대학교 교육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92년 사회복지법인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을 창설해 회장직을 맡고 루스벨트재단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유엔장애인위원회의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 상원의 인준을 받는 고위 공직자 500명 중 한 명인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자문으로서 미국 내 장애인 인권 분야에 큰 영향을 발휘해 한국인으로서 명예를 높였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중앙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정책 특별보였습니다.

그분은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2005년 위성단에서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오신 강영우 박사를 처음 만난 소감은 참으로 모든 대화에 진지하였으며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강영우 박사의 불행했던 인생스토리를 잠시 소개하면, 1944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친구들과 공을 차다가 불행하게도 공이 눈에 맞는 바람에 실명이 되었으며, 그 후 13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자신과 두 동생을 돌보던 누나도 과로로 죽고, 9살 된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자신은 맨인재활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상인도 어려운 일들을 해냈으며, 인생에서 승리한 복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어떻게 그런 사람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뜻에 마음이 민첩한 사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 될 수 있나요?

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얹음을 결코 잊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아버지를 잊지 않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살이갈 때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날마다 빛 되신 말씀 안에 거할 때..

아 ~~ !!

그렇군요... 확실하네요.

아버지 안에 거하면

후회 주시는 지혜로

마음이 민첩해 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결심케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단 5:12, 6:3 민첩한 다니엘을 묵상하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1)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8월 29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6일

사설

혼돈의 시대, 한국교회의 길을 묻다

오늘날 전 세계는 '다시'라는 구호에 열광하고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미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는 러시아까지, 강력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거 회복의 열망이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 구호들은 위대한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열망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태민족과 국가에 대한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대중의 깊은 욕망을 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한반도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야심과 이에 따른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 정치 상황 또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흑역사는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K-컬처의 나라가 외신에 비치는 부끄러운 모습은 민족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일부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정권의 충실했 행동대장이었던 검찰과 언론은 권력이 바뀌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이전 정권을 물어뜯고, 권력 주변을 맴돌던 불나방들은 새로운 권력을 찾아 옮겨간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이중잣대는 검찰 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만들고, 제2의 논두렁 시계' 같은 망신주기식 수사는 정권 따라 춤추는 정치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함을 드러낸다. 4년 전 찾아내지 못했던 녹취파일이 이제야 발견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건이 재조명되는 모습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도 무틸하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우리 한정사의 비극이다. 상대를 향한 친한 부친이 되어 돌아온다.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현 정권 또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4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법사

위원장, 과거 코인 투자와 재개발 딱지 투기로 나마 했다가 다시 요직에 복귀하는 인사들, 그리고 입시 비리와 기부금 횡령으로 복역했던 이들의 특별 사면까지, 국민들의 눈에는 여야 모두 똑같아 보일 뿐이다. 특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이들이 정치판에 가득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우리는 세상의 '다시' 구호에 동조하여 과거의 영광만을 되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라는 구호가 민족주의의 파도를 타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때, 교회는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며사니즘(물질만능주의)'에 빠져 본질을 잊어버렸던 과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강력한 리더십이 위기의 시대에 혈로를 뚫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강자의 논리나 민족적 자긍심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리더십이 더욱 절실히 한다.

교회는 세상의 '다시'가 아닌, 복음의 '다시'를 선포해야 한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여, 개인의 유행과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느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 같이 하느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여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인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徒 13:16-19)

목 양 신 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